

## 20대 여성을 위한 청바지 패턴의 맞춤새 비교 연구

김현아 · 천종숙\*<sup>†</sup>

연세대학교 의류과학연구소,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t of Jean Block Patterns for Women in their 20s

Hyun A Kim · Jongsuk Chun\*<sup>†</sup>

Research Institute of Clothing & Textiles Sciences,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Yonsei University

접수일(2010년 4월 26일), 수정일(2010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2011년 1월 4일)

####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methods to design patterns for jeans that are suitable for women in their twenties. Five patterns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ers were used to draw the same size of jeans (waist 67 and hip 91). The author compared and analyzed the measurements and shapes of the patterns, ranging from waist to crotch. Samples were produced based on these patterns and then tests were conducted to observe the dynamic functions and exteriors of the samples. The dynamic functions observed in this study include walking, ascending stairs, descending stairs and sitting on chairs.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 The best evaluated pattern in terms of exteriors is the one where the hips and thighs are tightest compared to other patterns and where the back part is wider than the front part. This pattern also received high evaluations in dynamic functions due to comfort when walking. Regarding ascending or descending stairs, the tests found that all its parts (except the front crotch) are more comfortable than those of any other patterns. All these results show that a comfortable fit and easy movement is possible when the crotch width of the back is broader than the hip width so that the hips are comfortably supported.

**Key words:** Jeans, Pattern, Exterior, Fit; 청바지, 패턴, 외관, 맞춤새

#### I. 서 론

일반적으로 청바지는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들이 주로 즐겨 착용하는 의류이며 사회 문화적인 가치 표현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Alexander, 1977). 청바지는 1950년대 미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패션의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이태리 패션전문가들의 영향에 의해 전 세계적인 패션트렌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류품목으로 자리 잡았다(Hang, 2006).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며 개인의 취향을 표현하는 의류로 청바지를 사용하고 있다(김연정, 2003).

여성 소비자들이 청바지 착용을 통해 날씬하고 매력적인 하반신 실루엣을 연출하려는 경향을 반영하여 청바지 관련 업체에서는 다리가 길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청바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경희, 소연정, 2009; 류경옥, 2010; Choi, 2007).

인체 실루엣을 드러내는 스타일의 청바지 이외에도 밀위길이 짧은 로우라이즈(low rise) 스타일 청바지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로 평가되고 있다(김선희 외, 2008). 최근에는 인체에의 실루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jschun@yonsei.ac.kr

본 연구는 2006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엿을 드러내는 타이트한 핏의 스키니 진(Skinny Jeans)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바지의 맞춤새가 중요하게 되었고 청바지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어미경 외, 2008).

편안한 착용감과 보기 좋은 외관을 나타내는 청바지용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들은 패턴의 맞춤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피복압(권윤희 외, 1998)과 체형(박정희, 2003)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3차원 인체 스캔 기술을 이용하여 청바지의 맞춤새를 분석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빈티지男·스키니女”, 2010). 이외에도 소재의 특성을 반영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었다. 신축적 소재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스판덱스와 혼용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 여성용 청바지 패턴 및 맞춤새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김선희 외, 2008; 송영은, 추미선, 2009; 어미경 외, 2009; 최진, 도월희, 2008).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20대 여성들이 청바지 맞춤새에 대해 높은 불만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정숙, 성수광, 2003; 최진, 도월희,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착용감과 외관이 우수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20대 여성에게 적합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바지의 맞춤새에 관한 연구

옷의 좋은 맞춤새에 대한 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유행이나 트렌드에 따라 변화한다(Ashdown & O'Connell, 2006). 또한 소비자의 연령 및 체형, 개인적인 선호 등에 따라서도 좋은 맞춤새를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진다(Dillard & Feather, 1988). 옷의 맞춤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재킷(장희경 외, 2001)이나 바지(김은경 외, 2003; 하희정, 2008), 스커트(박숙현 외, 200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청바지는 스커트나 드레스에 비하여 만족스러운 맞춤새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다(Schofield et al., 2006). 우리나라 20대 여대생들은 주로 로우라이즈 스타일을 착용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맞춤새 부위는 밑위길이, 엉덩이 부위라고 하

였다(김선희 외, 2008). 이는 여성들이 인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타이트한 핏의 청바지 스타일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 여성들이 청바지의 맞춤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위는 주로 허리, 배, 밑위, 엉덩이, 허벅지 부위이며(Bickle et al., 1995), 우리나라 20대 여성들도 청바지 착용 시 엉덩이, 밑위, 허벅지 부위가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하였으며(이정숙, 성수광, 2003), 특히 밑위 부분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라고 하였다(김연정, 2003; 최진, 도월희, 2008). 이와 같이 20대 여성들은 청바지 맞춤새를 파악할 때 밑위나 엉덩이 부위를 중요시함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들이 청바지의 맞춤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성복 업체들이 이들의 체형에 적합한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소비자들의 청바지 맞춤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점에도 원인이 있다는 선행연구(Bickle et al., 1995; Shin & Istook, 2007)의 주장을 지지한다.

### 2. 여성용 청바지 패턴 제도 연구

착용감이 우수하고, 적합한 맞춤새를 나타내는 청바지의 생산을 위해서는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들은 청바지 패턴은 기본 바지 패턴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한다(정선희, 2003; Armstrong, 2000). 일반 여성용 바지는 신체치수에 여유분을 추가하여 패턴을 제도하나, 청바지 패턴은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거나 뒤 밑위 연장길이를 앞 밑위연장길이보다 길게 제작하여 앞 패턴을 뒤 패턴보다 좁게 제작하여 앞 허벅지폭이 좁게 보여 날씬해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박정희, 2003). 이외에도 활동성을 높이거나(이승렬, 1999), 엉덩이윤곽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Crowther, 1985) 뒤 밑위선 경사각도를 크게 제작하기도 한다.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허리둘레부터 엉덩이둘레에 이르는 하반신 체형과 치수를 여성용 청바지 패턴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기술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리바이스사는 6만 명의 여성 체형을 3차원으로 스캔하여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허리와 골반, 엉덩이에 이르는 곡선의 정도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여 체형별로 적합한 맞춤새를 제공하는 시도를 하였다. 곡선에 따라 ‘슬라이트 커브(Slight Curve)’, ‘데미 커브(Demi Curve)’, ‘볼드 커브(Bold Curve)’ 세 가지로 구분하여 여성들의 체형에 맞는 청바지를 제공

하고 있다(“빈티지男·스키니女”, 2010). 최진, 도월희(2008)는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허리와 엉덩이둘레치수 차이인 하드롭치에 따라 다양한 체형으로 구분하고 청바지 패턴 설계 시 다양한 하드롭치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바지의 맞음새와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뒤 중심의 기울기, 허리위치, 앞, 뒤 밑위연장선, 앞, 뒤 밑위길이를 분석하여 이를 패턴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기 위해 무릎선의 위치를 신체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패턴 제도 방법 선정 및 치수 산출 방식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에게 적합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밑위길이를 중심으로 패턴의 형태와 치수 특성을 파악하고, 착용기능성 및 외관평가를 통해 패턴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학교 교재(n=18)와 연구논문(n=3)에서 제안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 중 5종의 패턴 설계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박영득, 1998; 어미경, 김인주, 1999; 이형숙, 1996; 정선희, 2003; 천종숙, 석은영, 2009). 연구자에 따라 인체 측정 방법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연구자들이 제안한 패턴 설계 방법을 정확하게 반영한 패턴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패턴의 선정기준을 인체 측정 방법 제시여부로 하였다.

연구패턴들의 허리치수, 엉덩이치수, 밑위연장길이, 밑위길이는 각각의 설계방법에 제시된 치수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표 1). 각 연구패턴의 치수 산출 방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패턴 A: 앞과 뒤 허리치수는 각각 0.5cm씩의 여유

분을 추가한다(W/4+0.5). 그러나 엉덩이치수에는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으며 앞과 뒤 패턴은 동일하다(H/4). 밑위연장길이는 엉덩이둘레의 치수에 따라 설정한다. 뒤 밑위연장길이는 앞 밑위연장길이보다 4cm 더 길다. 밑위길이는 인체치수와 동일한 치수를 사용한다.

패턴 B: 앞 허리치수는 1cm의 여유분을 추가한다(W/4+1). 뒤 허리치수는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는다(W/4). 엉덩이치수는 앞과 뒤에 각각 1cm의 여유분을 추가한다(H/4+1). 밑위연장길이는 엉덩이둘레의 치수에 따라 설정한다. 뒤 밑위연장길이(H/24+1)는 앞 밑위연장길이(H/24)보다 1cm 더 길다. 밑위길이는 인체치수와 동일한 치수를 사용한다.

패턴 C: 허리치수에는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고(W/4), 엉덩이치수에는 앞과 뒤에 각각 0.5cm의 여유분을 추가한다(H/4+0.5). 밑위연장길이는 엉덩이둘레치수에 따라 설정한다(앞: H/16-1, 뒤: H/8-2.5). 밑위길이는 인체치수와 동일한 치수를 사용한다.

패턴 D: 허리치수에는 여유분을 추가하지 않는다(W/4). 앞 엉덩이치수는 인체치수보다 1.5cm 작게 제도한다(H/4-1.5). 뒤 엉덩이치수는 2cm의 여유분을 추가한다(H/4+2). 앞 밑위연장길이는 모든 사이즈에서 2.7cm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 밑위연장길이는 엉덩이둘레치수에 따라 설정한다(H/15+2.7). 밑위길이는 인체치수보다 4cm 짧다.

패턴 E: 앞 허리치수에는 0.9cm의 여유분을 추가하고(W/4+0.9), 뒤 허리치수는 0.7cm 여유분을 추가한다(W/4+0.7). 앞 엉덩이치수는 인체치수보다 0.4cm 작게 제도한다(H/4-0.4). 뒤 엉덩이치수는 1cm의 여유분을 추가한다(H/4+1). 앞 밑위연장길이는 모든 사이즈에 5cm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뒤 밑위연장길이는 엉덩이둘레치수에 따라 설정한다(H/8-1.3). 밑위길이는 인체치수보다 0.5cm 짧게 설정한다(표 1).

<표 1> 연구용 패턴의 부위별 치수 산출식

(단위: cm)

패턴	A		B		C		D		E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허리치수	W/4+0.5	W/4+0.5	W/4+1	W/4	W/4	W/4	W/4	W/4	W/4+0.9	W/4+0.7
엉덩이치수	H/4	H/4	H/4+0.5	H/4+0.5	H/4+0.5	H/4+0.5	H/4-1.5	H/4+2.0	H/4-0.4	H/4+1
밑위연장길이	H/16-1	H/16+3	H/24	H/24+1	H/16-1	H/8-2.5	2.7	H/15+2.7	5.0	H/8-1.3
밑위길이 (벨트분량포함)	R		R		R		R-4		R-0.5	

W: 허리둘레, H: 엉덩이둘레, R: 밑위길이, L: 바지길이

\*패턴 D는 제도 후 앞 밑위길이를 4cm더 짧게 재설정하므로 완성된 허리치수는 치수 산출식의 값보다 크다.

## 2. 연구패턴의 설계 및 실험복 제작

선정된 5종의 패턴 설계 방법<그림 1>에 따라 연구패턴을 제도하였다. 연구패턴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의 20~29세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치수(67.7cm)와 엉덩이둘레치수(90.0cm)에 가장 근접한 KS 여성용 바지치수 규격인 67~91치수로 제작하였다. 밑위길이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데이터의 엉덩이수직길이(27.2cm)에 근접한 27cm로 제작하였다. 제도를 완료한 후 연구패턴의 앞과 뒤 밑위폭, 밑위연장길이, 밑위중심길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그림 2). 실험복은 면 100%의 데님 소재로 제작하였다(표 2).

## 3. 착의평가

### 1) 활동기능성 평가

기성복 바지사이즈 67~91을 착용하는 20대 여성 피험자(n=3)가 착의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의 신체치수는 허리둘레가 67~68cm이고 엉덩이둘레치수는 90.5~92cm이었다. 밑위길이는 27~28.5cm이었다(표 3).

활동기능성 평가를 위하여 피험자들은 5종의 실험복을 각각 착용하고 일반적인 보폭으로 걷는 동작(2분),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동작(2분)과 의자에 허리를 바로 세우고 앉는 동작(1분)을 취한 뒤 각각의 실험복에 대한 활동기능성을 평가하였다(그림 3). 활동기능성은 엉덩이, 밑위, 허벅지와 배, 살 부위의 맞음새와 편안함에 대하여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 2) 외관평가

청바지 패턴 설계 경력이 있는 패턴사(n=28)들을 대상으로 연구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의 외관맞음새 우수성을 순위평가를 실시하였다. 피험자(n=3)가 5종의 실험복(A~E)을 착용한 정립자세를 전면, 측면, 후면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고 사진은 전면, 후면, 측면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외관평가에 참여한 패턴사들은 패턴 제도 업무 경력이 16년 이상(35.7%), 6~10년(28.6%), 5년 이하(25.0%)이었으며, 청바지 패턴을 제도한 경력은 5년 이하(47.1%)와 6~10년(32.1%)이었다(표 4). 외관평가는 패턴사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으로 사용한 항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는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순위데이터는 켄달일치계수에 관한 검정방

식(노형진, 2002)으로 분석하였다. 켄달일치계수(W)는 m명의 평가자가 n개의 대상물에 순위를 매겼을 때 평가자의 순위 매김에 일치성이 있는지를 보는 지표로서 W가 0일 때는 전혀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W=1일 때 완전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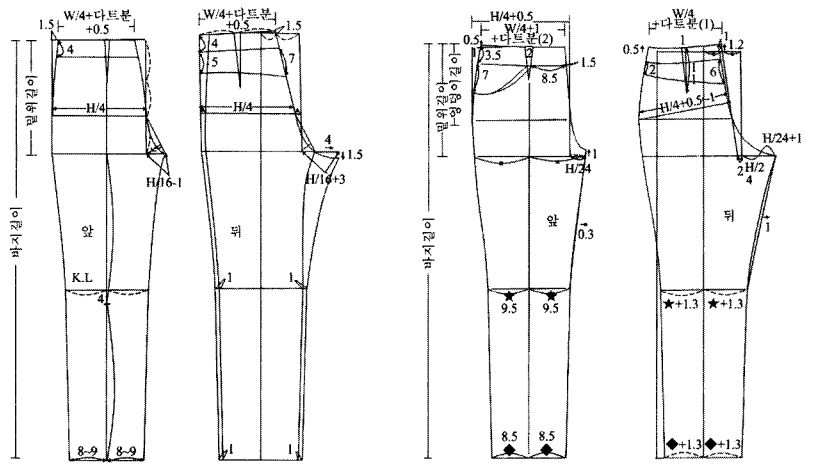
### 1. 연구패턴의 특징

67~91사이즈로 제작한 연구패턴의 밑위중심길이, 밑위폭, 밑위연장길이 치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패턴들은 앞보다 뒤 패턴의 치수가 컸다(표 5). 밑위중심길이는 전반적으로 뒤가 앞보다 5.5~11.8cm 더 길었다. 특히 패턴 D(11.8cm)가 앞과 뒤 밑위중심길이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패턴 E(5.5cm)는 가장 작았다. 앞 밑위중심길이는 패턴 D가 다른 연구패턴들보다 2.0~4.3cm 더 짧았다. 뒤 밑위중심길이는 패턴 C(38cm)가 가장 길었으며, 패턴 D(36.3cm)와 패턴 A(36.2cm)도 긴 편이었다. 패턴 B(33.5cm)와 패턴 E(34.3cm)는 비교적 짧았다(표 5). 즉 패턴 A, C, E는 앞과 뒤 밑위중심길이가 긴 패턴이었고, 패턴 D는 앞 밑위중심길이는 짧고 뒤 밑위중심길이는 긴 패턴이었다.

밑위폭도 뒤가 앞보다 5.2~9.5cm 더 넓었다. 앞과 뒤 밑위폭의 차이는 패턴 D(9.5cm)가 가장 컸고 패턴 B(7.4cm), 패턴 C(6.8cm), 패턴 E(6.6cm), 패턴 A(5.2cm) 순이었다. 앞 밑위폭은 패턴 D(23.8cm)가 가장 좁았고 그 다음은 패턴 B와 E(26.2cm), 패턴 C(27.2cm), 패턴 A(27.4cm)이었다. 뒤 밑위폭은 패턴 D(37.3cm)가 가장 넓었고 그 다음은 패턴 C(34cm), 패턴 B(33.6cm), 패턴 E(32.8cm), 패턴 A(32.6cm)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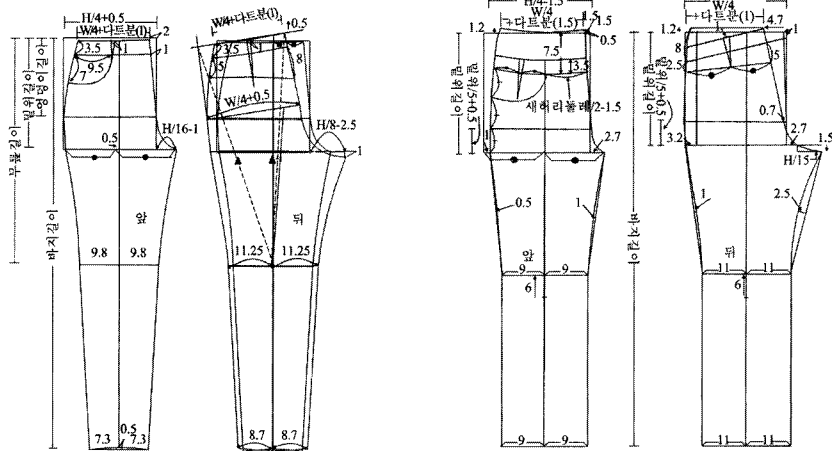
밑위연장길이도 뒤가 앞보다 1.0~6.1cm 더 길었다. 앞과 뒤 밑위연장길이 차이는 패턴 D(6.1cm), 패턴 E(5.7cm), 패턴 C(4.2cm), 패턴 A(4cm), 패턴 B(1cm)이었다. 앞 밑위연장길이는 패턴 D(2.7cm)가 가장 짧았으며 그 다음은 패턴 B(3.8cm), 패턴 A와 C(4.7cm), 패턴 E(5cm)이었다. 뒤 밑위연장길이는 패턴 E(10.7cm)가 가장 길고 그 다음은 패턴 C(8.9cm), 패턴 D(8.8cm), 패턴 A(8.7cm), 패턴 B(4.8cm)이었다.

즉, 연구용 패턴들은 뒤 패턴이 앞 패턴보다 크며, 항목별로 비교하면 밑위중심길이 차이는 D>C>A>B>E 이고, 밑위폭의 차이는 D>B>C>E>A이며, 밑위연장길이 차이는 D>E>C>A>B 이었다(표 5). 패턴 A는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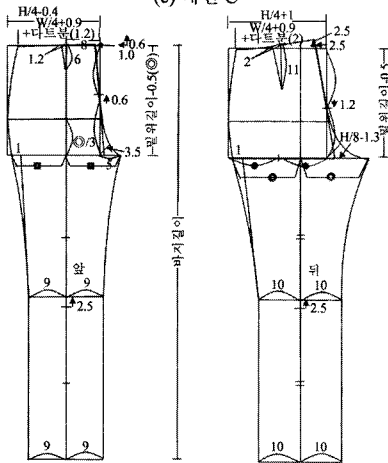
(a) 패턴 A

(b) 패턴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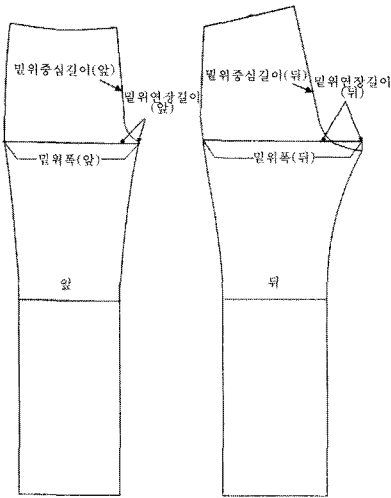
(c) 패턴 C

(d) 패턴 D



(e) 패턴 E

<그림 1> 연구패턴의 제도 방법



<그림 2> 연구패턴의 치수 비교 항목

과 뒤 패턴의 밑위폭과 밑위연장길이의 차이가 작은 패턴이었으며, 패턴 B는 밑위폭의 차이가 큰 패턴이었

다. 패턴 E는 밑위중심길이 차이와 밑위폭 차이가 작은 패턴이었다(그림 4).

2. 착용기능성

걸기와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기 동작에서 엉덩이, 밑위, 살, 허벅지 부위에서의 착용감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패턴 D가 가장 편안하다고 평가되었다. 패턴 A는 걸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보다 의자에 앉는 동작에서 편안한 패턴이었고, 패턴 B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과 의자에 앉는 동작에서 살 부위가 편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패턴 E는 걷는 동작에서는 엉덩이 부위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는 앞 밑위가 편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6). 뒤 밑위연장길이가 앞 밑위연장길이보다 긴 패턴이 엉덩이 부위를 감싸는 인체 적합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박혜진, 2003)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밑위 부위 치수가 앞 패턴보다 뒤 패턴이 더 큰 패턴(D)이 걸거나 의자에 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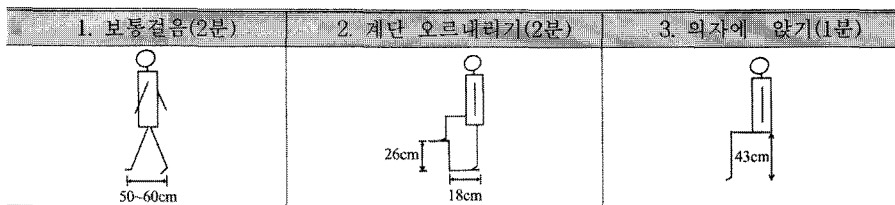
<표 2> 소재 특성

섬유혼용 (%)	중량 (g/m <sup>2</sup> )	조직	두께 (mm)	밀도 (올/inch)		강도 (kg)	
				경사방향	위사방향	경사방향	위사방향
면 100	362	능직	0.703	78	47	69.7	28.9

<표 3> 척의실험 참여피험자 신체치수

(단위: cm)

측정항목	피험자 1	피험자 2	피험자 3
허리둘레	67.0	68.0	68.0
엉덩이둘레	91.0	92.0	90.5
밑위길이	28.0	27.0	28.5



<그림 3> 기능성 평가를 위한 실험 동작

<표 4> 외관평가 패턴사의 업무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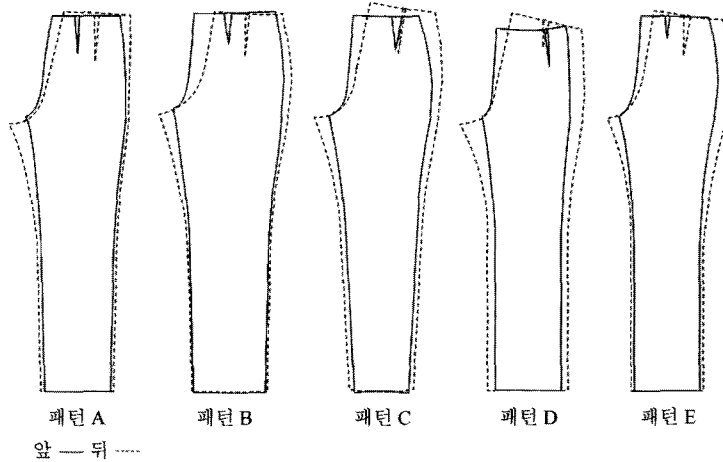
(n=28)

업무	경력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합계 (명(비율))
패턴 업무 종사연수		7(25.0%)	8(28.6%)	3(10.7%)	10(35.7%)	28(100%)
청바지 패턴 경력		16(57.1%)	9(32.1%)	2( 7.1%)	1( 3.6%)	28(100%)

<표 5> 실험복 패턴의 밑위 부위 치수

(단위: cm)

패턴	A		B		C		D		E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밑위중심길이	28.7	36.2	26.5	33.5	28.5	38.0	24.5	36.3	28.8	34.3
밑위폭	27.4	32.6	26.2	33.6	27.2	34.0	23.8	33.3	26.2	32.8
밑위연장길이	4.7	8.7	3.8	4.8	4.7	8.9	2.7	8.8	5.0	10.7



<그림 4> 연구패턴의 앞과 뒤 패턴 중합도

<표 6> 착용피험자들의 기능성 착의평가결과

(n=3)

동작 패턴 부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 앉기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엉덩이	3.00	3.67	3.33	4.00	4.00	3.00	3.33	3.00	4.00	3.33	4.33	3.67	2.67	4.00	3.00
앞 밑위	3.67	3.33	2.00	4.00	3.33	3.33	3.33	2.33	3.33	4.00	3.67	3.33	2.00	3.67	3.00
뒤 밑위	3.67	3.33	2.67	4.33	3.67	3.67	3.33	2.33	4.00	3.67	4.00	3.67	3.33	4.00	3.67
살 부위	3.00	3.67	2.00	4.67	3.33	3.00	4.33	2.67	4.00	3.67	4.00	4.00	2.67	4.67	3.33
앞 허벅지	3.00	3.00	2.00	4.00	3.67	3.33	3.00	2.00	4.33	2.33	3.67	3.00	2.67	4.33	3.00
뒤 허벅지	2.00	2.33	1.67	4.00	2.67	2.67	2.33	2.33	3.67	3.00	3.33	3.33	2.67	4.33	3.33

음영 표시 부분은 각 부위별로 편안한(4.00 이상) 패턴들을 표시한 것임.

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동작에서 편안한 패턴으로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불편하였던 부위를 동작별로 비교하면, 패턴 D를 제외한 모든 패턴들이 걷기 동작과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부분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걷기 동작에서 패턴 A는 뒤 허벅지가 불편하였고(2.00), 패턴 C는 앞 밑위, 살 부위, 앞 허벅지(2.00)와 뒤 허벅지(1.67)가 불편하다고 평가되었고, 패턴 C는 앞과 뒤 허

벅지(2.00, 1.67)와 살 부위(2.00)가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 패턴 E는 뒤 허벅지(2.67)가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는 패턴 B가 뒤 허벅지에서 불편하였고(2.33) 패턴 C는 앞 허벅지가 가장 불편하고(2.00), 앞 밑위(2.33), 뒤 밑위(2.33), 살 부위(2.67), 뒤 허벅지(2.33)도 불편하다고 하였다. 패턴 D는 전반적으로 편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앞 밑위가

<표 7> 외관의 우수성 평가순위

(n=28)

피험자	패턴 부분	평가순위(평균)					견달의 일치도 평가	
		패턴 A	패턴 B	패턴 C	패턴 D	패턴 E	일치계수 W	p 값
1	앞	2.93	2.93	3.54	1.14	4.46	.589	.000
	뒤	2.75	2.61	4.82	1.14	3.68	.744	.000
	옆	3.21	2.54	4.63	1.39	3.23	.555	.000
2	앞	3.18	2.23	4.05	1.32	4.21	.603	.000
	뒤	2.70	3.02	4.36	1.61	3.32	.398	.000
	옆	2.86	3.86	4.43	1.45	2.41	.557	.000
3	앞	3.21	2.75	3.64	1.32	4.07	.449	.000
	뒤	3.68	2.43	4.36	1.64	2.89	.448	.000
	옆	2.36	3.64	3.93	1.71	3.36	.347	.000

계단을 오르내릴 때 패턴 E보다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 패턴 E는 앞 허벅지(2.33)가 불편하다고 평가되었다.

3. 외관의 적합성

청바지 패턴 설계 경험을 가진 의류업체의 패턴 설계사들(n=28)에게 실험복의 앞면, 옆면, 측면 외관의 우수성을 순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패턴 D를 전반적으로 외관이 우수한 패턴으로 평가하였다(p<.01)(표 7).

평가원들이 외관평가 시 사용한 기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맞춤새와 엉덩이 부위의 맞춤새를 외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앞 밀위와 뒤 밀위밸런스(42.9%), 밀위길이(39.3%),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임(35.7%) 등도 외관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하였다(표 8).

연구패턴의 앞과 뒤 치수의 비교 결과와 외관평가 결과, 평가단이 사용한 외관평가의 기준 항목들을 비교하면 뒷면이 앞면에 비해 넓게 설계되어 뒤 엉덩이와 살 부위가 감싸지는 패턴이 허벅지가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어 외관이 우수한 패턴으로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대 여성에게 적합한 청바지 패턴 제도 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자들이 제안한 5종의 패턴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치수로 제작한 연구패턴의 부위별 형태와 치수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연구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일상생활

<표 8> 평가원들이 사용한 외관평가기준

(n=28)

외관평가기준 항목	사용비율(n)
전체적인 피트니스	100%(28)
엉덩이의 피트니스	100%(28)
앞 밀위길이가 뒤 밀위길이의 밸런스	42.9%(12)
밀위길이 또는 허리선 높이	39.3%(11)
날씬해 보임	35.7%(10)
다리가 길어 보임	35.7%(10)
착용감이 편해 보임	3.6%( 1)
엉덩이 중심선 각도	3.6%( 1)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 활동기능성을 평가하고, 정립 상태에서 외관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들은 허리와 엉덩이둘레에 전체적으로 0~3.2cm의 여유분을 부가하여 타이트한 핏부터 여유분이 있는 핏 등 다양하였다. 밀위중심길이가 밀위폭, 그리고 밀위연장길이의 앞과 뒤의 차이는 패턴 D가 가장 커서 뒤 패턴이 앞 패턴에 비해 큰 치수를 나타내었다. 패턴 B는 앞, 뒤 밀위폭의 차이가 컸고, 패턴 D는 앞, 뒤 밀위중심길이의 차이와 밀위폭 차이가 작았다.

연구패턴들의 치수를 활동기능성 평가 및 외관평가와 비교한 결과 밀위와 허벅지 부분의 앞, 뒤 너비 차이가 크며, 엉덩이와 허벅지가 타이트한 패턴이 착용감이 좋고 외관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뒷면이 앞면보다 밀위폭과 엉덩이폭 치수가 큰 패턴이 편안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박정희,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여성에게 적합한 패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보여준 바와 같이 엉덩이둘레 91cm인 치수의 경우 기존의 청바지 제도 방식보다 밑위폭은 1.9~4.1cm 더 작게 제도하며 특히 앞 밑위폭을 2.4~3.6cm 더 작게 하여 제도한 패턴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것은 밑위폭 특히 앞 밑위폭이 작은 청바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해석된다.

밑위가 짧은 스타일의 연구패턴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청바지 패턴보다 우수하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으나 외관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조사 당시 로우라이즈 청바지가 유행하였다는 점과 현재의 패턴사들이 외관평가를 하게 하였으므로 밑위 길이가 긴 청바지 패턴과 외관을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관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패턴과 실험복의 치수를 20대 여성의 평균 허리치수와 엉덩이치수를 반영하여 67~91치수 한가지로 제한하여 연구한 결과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된 청바지 패턴이 다양한 치수와 제형의 피험자들에게도 적합한 청바지 패턴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밑위길이의 차이에 따른 스타일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패턴을 선정하여 스타일의 차이가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밑위길이에 따른 스타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타일 요소를 연구패턴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패턴은 시기적으로 다른 패턴들이 선택된 것이므로 최근에 연구된 청바지 패턴 설계 방법들도 포함하여 비교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바지 외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평가 단으로 의류업체 패턴사들을 활용한 이유는 이들이 소비자 시선의 수준에서 현실적 기준으로 외관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보면 패턴사들이 당시 유행하던 짧은 밑위길이를 외관평가의 기준 중 하나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의류업체 패턴사들의 외관평가결과를 학계 연구자들의 평가와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를 규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권윤희, 이연순, 나미향. (1998). 블루 진의 설계와 피복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7), 1227-1235.

- 김경희, 소연정. (2009). 청바지 패턴 제작에 따른 시각적 이미징 연구. *한국외류학회지*, 33(10), 1541-1551.
- 김선희, 김혜수, 전미선. (2008). Hipbone 청바지의 밑위길이 변화에 따른 여대생의 청바지 착용실태 및 인지 비교 조사 연구. *복식문화연구*, 16(6), 1088-1098.
- 김연정. (2003).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용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최혜선, 이경미. (2003). 중년 여성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만 34세에서 59세까지-. *대한가정학회지*, 41(3), 1-15.
- 노형진. (2002). *한글 SPSS 10.0에 의한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류경옥. (2010). 착시효과를 응용한 여자 청바지 디자인-선의 착시를 중심으로-. *복식*, 60(3), 1-9.
- 박숙현, 권미정, 이경림. (2004). 선호스타일과 착용스타일별 신체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비교 (제2보)-팬츠와 스커트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2(4), 511-528.
- 박영득. (1998). *패턴 제작 및 활용*. 서울: 형설출판사.
- 박정희. (2003). *하반신의 유형별 진 슬랙스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혜진. (2003). *주문생산을 위한 자동제도 슬랙스 원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빈티지男·스키니女... 춘출분패. (2010, 8. 23). *헤럴드경제*. 자료검색일 2010, 9. 20, 자료출처 <http://www.biz.heraldm.com>
- 송영은, 추미선. (2009). 청바지의 패턴이 보행 시 하지 근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류학회지*, 11(6), 911-917.
- 어미경, 김경아, 서미아. (2008). 비신축성 데님 청바지의 패턴 연구-워싱 가공 종류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6(3), 461-474.
- 어미경, 김경아, 서미아. (2009). 워싱 가공 종류에 따른 청바지의 패턴 연구. *복식문화연구*, 17(4), 535-547.
- 어미경, 김인주. (1999). *어패럴 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 이승렬. (1999). *이승렬의 패턴 이야기*. 서울: 기술과 감성.
- 이정숙, 성수광. (2003). 진 슬랙스 구입 및 수선에 관한 실태 조사-18~23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외류학회지*, 5(2), 153-158.
- 이형숙. (1996). *서양 의복구성* (개정판). 서울: 교학연구사.
- 장희경, 손희순, 임순, 김영숙. (2001). 중국 여대생 대상 한국 의류제품의 맞춤새 평가-테일러드 재킷과 슬랙스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5(1), 145-156.
- 정선희. (2003). *청바지 패턴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천중숙, 석은영. (2009). *의복구성학*. 서울: 동서문화원.
- 최진, 도월희. (2008). 부츠 컷(Boots-cut) 청바지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20~30대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지*, 32(2), 271-283.
- 하희정. (2008). 플러스사이즈 여성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정장 바지사이즈 현황 및 맞춤새 분석. *복식*, 58(1), 133-150.

- 한국표준협회. (2004).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 서울: 한국표준협회.
- Alexander, P. R. (1977). *Textile products-selection, use, and care*. Boston: Houghton Mifflin Co.
- Armstrong, H. J. (2000). *Patternmaking for fashion design* (3rd ed.). NJ: Prentice Hall.
- Ashdown, S. P., & O'Connell, E. K. (2006). Comparison of test protocols for judging the fit of mature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4(2), 137-146.
- Bickle, M. C., Kotsiopoulos, A., Dallas, M. J., & Eckman, M. (1995). Fit of women's jeans: An exploratory study using disconfirmation paradigm.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Dissatisfaction & Complaining Behavior*, 8, 208-13.
- Choi, E. A. (2007). *A searching method for the style features of fashion jean pa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rowther, E. M. (1985). Comfort and fit in 100% cotton-denim jeans. *Textile Institute*, 5, 323-338.
- Dillard, B., & Feather, B. (1988). Clothing behavior of older consumers: An overview. *Canadian Home Economics Journal*, 38(3), 118-120.
- Hang, K. N. (Ed.) (2006). *The denim bible: Jeans encyclopedia II*. Milan: Sportswear International.
- Labat, K. J., & Delong, M.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8(2), 97-102.
- Schofield, N. A., Ashdown, S. P., Heathorn, J., Labat, K., & Salusso, C. J. (2006). Improving pant fit for women 55 and older through an exploration of two pant shape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24(2), 147-160.
- Shin, S. H., & Istook, C. L. (2007).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hape of diverse ethnic female consumers for developing jeans sizing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 135-143.